

전북체육회, 임원진 새롭게 구성

전문·생활·학교체육 고르게 구성... 언론계·학계·의료계 인사 65명 포진

전북체육회가 덕망있는 인사들로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재도약이 기대된다.

1일 도 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전북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인사들을 임원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원진 재편은 규약 개정에 따라 최대 72명(부회장, 감사 포함)까지 구성할 수 있다. 이에 공정한 임원 인선 기준에 따라 현 임원진에 합류 할 신입 임원을 보선 및 선임했다.

이로써 임원은 기존 31명에서 65명으로 대폭 늘었다.

새롭게 합류 된 34명의 임원들은 체육과 인연이 깊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학교체육 등에 역량이 있는 인사로 구성했다.

또한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의료계 등 전북 체육에 관심이 높은 비경기 인도 두루 포함됐다.

부회장으로는 조장희(익산시체육회장), 백성기(전북바이에슬론연맹 회



조장희 부회장



백성기 부회장



정영택 부회장



강종구 부회장



최훈 부회장



임미경 부회장

장, 정영택(전주온누리안과 원장), 강종구(전 전북대 체육교육과 교수) 등 4명이 합류했다.

이로써 기존 최훈(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임미경(88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익산병원 행정처장) 부회장을 비롯해 총 6명이다.

도 체육회는 시군체육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조장희 회장을, 동계종목과 하계종목의 원활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백성기 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영택 원장은 전북롤러스포츠 연맹 회장으로 스키리프트 인과수술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10년 이상 이어오고 있다.

신임 이사들을 살펴보면 고봉수(전

주비전대 교수), 김동현(전주시농구 협회회장), 김병이(임실군체육회 회장), 김영천(전 전북레슬링협회 부회장), 김진(전 전북생활체육회 부회장), 김충환(전북종목단체협의회 회장), 박지원(전북바둑협회 회장, 변호사), 박종기(전북시름협회 회장), 양재량(전 전북육상경기연맹 실무부회장), 이명찬(호원대학교 스포츠단장), 이상훈(전북하키협회 회장), 임영석(전북검도회 회장), 조소형(프로골퍼), 최광근(전주대 태권도학과 교수), 홍봉성(전주시체육회 사무국장), 황진(전북대 체육교육과 교수) 등 인사가 포진했다.(가나다 순)

이는 종목단체와 시군체육회, 학교 등 체육 분야 어느 한 곳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임원 선

임에 도 체육회가 신중을 기했다.

아울러 위병기(전북일보 편집국장), 하종대(채널A 보도본부 부국장,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 중견 언론계 인

사와 김동현(바른한의원 대표의장)과 최이전(삼광의원 원장), 최병선(최치과의원 원장) 등 의료계 인사도 포함됐다.

위병기 편집국장은 기자 시절 오랫동안 체육부를 맡으면서 전북 체육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며, 하종대 부국장은 동아일보에서 국제부와 중국 베이징 특파원을 하면서 국제 체육 교류에 능통하다는 평이다.

정강선 회장은 "전북체육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이 있는 덕망 있는 분들을 임원으로 모셨다"며 "도민과 함께하는 체육회, 사랑받는 체육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원들의 임기는 2023년 2월 정기총회 전일까지다. /정은성 기자

전북기능경기대회 5일 개최

전주공고 등 17개교 28개 직종 · 194명 참가

'2021년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가 오는 5~9일까지 도내 8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우수한 숙련기술인들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이들의 사기진작과 기능수준 향상을 위해 해마다 개최된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대회에는 자동차정비 등 총 37개 직종에 255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특히 전주공고를 비롯해 도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17개교에서 28개 직종에 학생선수 194명이 참가한다.

주요 참가직종으로는 자동차정비, 기계설계카드, 산업용드론제어, 농업기계정비, 게임개발, 용접, 요리 등이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및 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오는 10월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라북도 대표 선수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한편 이번 기능경기대회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폐회식 및 경기관전은 이뤄지지 않고, 직종별 경기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은성 기자

원광대 HK+지역인문학센터, 찾아가는 라디오 진행

NEAD 라디오 시즌6... 'FM모닝쇼 김차동입니다'에서 송출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HK+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는 4일부터 5월 9일까지 '찾아가는 NEAD 라디오 시즌6'을 진행한다.

NEAD는 동북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역사, 문화 그리고 도시 공동체 구축을 의미하며, 시즌별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NEAD 라디오 프로그램은 연구 성과 확산 및 공유를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 시즌과 마찬가지로 전주MBC 'FM모닝쇼 김차동입니다'를 통해 송출되는 여섯 번째 시즌은 4일 방송되는 김주용 HK+연구소 부소장의 '국제도시 상하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세계화 속에서 민주주의의 양상 변화와 한국의 민족주의를 다루는

박해남 HK+연구소의 '국제와, 세계화, 그리고 1990년대 한국의 민족주의'가 이어진다.

인문지식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NEAD 라디오'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일상 속의 인문학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HK+지역인문학센터장 강연호 교수는 "이 프로그램이 인문학 지식 축적에 걸음을 느꼈던 많은 분이 참여해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는 기회로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지금까지 원광대 HK+지역인문학센터에서 주관한 무료 인문학 강좌는 유튜브에서 '합성인문학 TV'로 검색해 감상할 수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직업계고 학생 대상

인문역량강화 사업 추진

전북도교육청은 1일 도내 직업계고 19개교를 대상으로 '2021년 직업계고 인문역량강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직업계고 학생들을 '인성과 감성을 갖춘 전문 기술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문학·역사·문화·예술 등 인문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운영 유형은 학생중심 인문학 프로그램과 교사중심 인문학 프로그램 두 가지다.

도교육청은 오는 7일까지 도내 직업계고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아 최종 16개 인문학 프로그램을 선정, 프로그램별 300만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들의 인문학적 감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라면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데 인문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장승초교, 미안마 돕기 바자회

장승초 학생들이 최근 미안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바자회를 열었다.

이번 바자회는 장승초 학생들과 학부모가 참석했다. 이날 바자회는 6학년 학생 19명이 다섯 개의 모둠으로 나눠 떡볶이·쿠기·샌드위치 만들기 등 요리체험, 열쇠고리 만들기, 장난감 판매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바자회를 통해 거둔 모금액은 총 83만3,850원이며, 전액 (사)아시아이주여성센터에 기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청소년 정책참여 기회 확대

전북도교육청은 2일 5층 정책협의실에서 정책위원 11명, 학생위원 10명 등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내 학교 청소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해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올바른 성장을 돕는다. 아울러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 활동

에 관심 있는 단체 및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청소년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6대 추진방향 21대 핵심과제를 선정·심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청소년 능력 개발 ▲청소년문화 활성화 ▲청소년의 체육활동 강화 ▲

청소년 권리보호 ▲청소년 창업활동 지원 등이다.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청소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청소년정책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장은성기자

군산대 창업지원단,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이 2021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모집 중으로 4월 15일까지 22개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업력 3년 이내의 창업기업이고, 개인 및 법인 모두 가능하다.

모집 분야는 일반분야와 전략분야 두 가지이다. 일반분야는 모든 창업아이템이 가능하고, 전략분야는 그린(에너지) 분야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만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군은=남현용 기자

사업에 선정된 22개 초기창업기업에게는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아이템 검증, 투자, 마케팅, 전문가 멘토링 등 특화 프로그램 추가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을 선정해 시제품 제작·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은=남현용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